

당뇨병환자의 피부질환, 소양증

김광중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피부과



당뇨병은 인슐린의 부족에 의해 탄수화물의 대사이상을 일으키고 신체 각 장기를 침범하는 만성 내분비 질환이다. 전체 당뇨병환자의 30% 내외에서 피부질환이 발생하며, 이는 당뇨병의 조기 진단과 합병증의 초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피부변화를 가져오는 고혈당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는 혈당은 피부 단백질의 비효소성 당화(NEG)를 일으키고, 결국은 비가역적인 최종당화산물(AGEs)이 만들어진다. 최종 당화산물은 관절운동 제한뿐만 아니라, 당뇨병환자의 피부가 두꺼워지는 피부변화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는 피부의 콜라겐과 같은 단백질들이 비효소성 당화과정을 거쳐 분해되지 않는 성질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슐린저항성 혹은 인슐린이 결핍된 사람의 경우 발진성 황색종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한편, 인슐린저항성을 가진 경우 흑색극세포종같은 임상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생화학적, 내분비학적 변화들은 피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이나 혈관에 변화를 일으킨다. 신경과 신경 전달물질들이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정상적인 조직 복원현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의 변화는 조직 복원력의 감소와 피부감염을 일으키고 피부궤양 형성에 영향을 준다. 치유되지 않는 궤양은 사지절단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가진 환자에게서 보다 흔하다.

당뇨병환자에게 나타나는 피부질환의 종류

당뇨병에 동반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으로는 당뇨병성 피부 비후, 흑색극세포종, 경피증양증후군과 관절경직, 경화부종, 발진성 황색종, 원형 육아종, 반응성 천공성 교원증, 글루카곤종, 백반증, 경골반, 당뇨병성 유지방성 피사생성, 당뇨병성 수포, 당뇨병성 족부병변, 소양증, 건피증 등이 있으며 이중 건피증은 소양증의 유발에 깊이 관여하리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건피증은 주관적인 증상이지만 환자의 소양감의 주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소견이다.

당뇨병환자의 가려움증은 왜 생기나?

소양증은 많은 피부질환과 전신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편의상 소양증은 긁거나 비벼대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불쾌한 감각이라고 정의된다. 소양증은 일반적으로 외부자극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도 있으나, 외부물질과의 가벼운 기계적 접촉, 주위의 차거나 더운 온도의 변화, 화학적 물질이나 전기적 자극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피부질환이나 내과적 또는 신경과적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소양증은 매우 주관적인 감각으로서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같은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자극이 때에 따라서 매우 다른 정도의 소양감을 일으킬 수 있다. 정신적 상태 특히 긴장, 불안, 공포에 의해 심해질 때가 많으며, 하루 중 에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장 소양증이 심하다. 신체부위 중 눈꺼풀 주위, 콧구멍, 귓구멍, 항문, 성기 및 그 주변부위가 소양증에 대해 가장 민감한 부위이다.


당뇨병환자에서 소양증의 빈도는 보고마다 다양하여 외국의 경우는 3.2%, 국내에서는 6.9~16.1%로 보고 되고 있다. 당뇨병에서의 소양증은 특히 항문 생식기 부위와 하지부위에 빈발하고 경우에 따라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양증의 원인으로는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자율 신경계의 기능손상으로 땀 분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피부의 수분함량이 저하되어 유발되는 피부의 건피증과 혈당의 과잉저장으로 인한 'skin diabetes' 또는 엔도테피다아제 동화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가려움증의 예방과 치료

피부질환에 의한 소양증과 전신질환에 동반된 소양증 모두 소양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피부질환은 많지 않으므로 당뇨병에서도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치료법이 중요하다. 소양증은 신체주변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얇고 가벼운 옷과 침구를 사용하며 칼라민 로션이나 1% 멘톨로션으로 피부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모와 같은 자극적인 직물에의 노출을 피하고 굵은 슬리퍼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긴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커피, 홍차,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Theobromine), 술, 콜라, 등은 소양증을 악화시킨다. 피부건조에 의한 소양증은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을 피하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전신에 바르는 것이 좋다. 부신 피질 호르몬제의 전신투여 또는 국소도포가 치료에 도움이 되

며 내복약으로는 1세대 / 2세대 항히스타민제와 아편양 수용체 길항제도 치료가 어려운 소양증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용어풀이>

엔도테피다아제 - 펩티드 중간분해 효소
테오브로민 - 신경전달물질